무척 억울했는데 사소한 것이었다

(욥기 24:1~25)

1.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2.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기르며
3.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4.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 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5.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6.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 둔 포도를 따며
7.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8.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9.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므로
10.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11.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 틀을 밟느니라
12.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무척 억울했는데 사소한 것이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무척 억울했는데 사소한 것이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읽히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읽으셨던 리처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습관 바꾸기 편, 직장인 편, 부자 되기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소한 것인지를 참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100가지가 나오는데 사소한 것과 사소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가리는 내용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부터 일 년 후에도 이 일이 내게 중요할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것이 사소한 일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

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일 년 후를 생각해보면 이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인들만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태도 자체는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거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처럼 마음과 뜻과 힘이 우리의 투자 자본금이라면 하나님께 드릴뿐 사소한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사소한 일을 가려낼 수 있는 질문 방식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변화산의 베드로가 주님의 영화로우신 모습을 볼 때에 그곳을 좋아하고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 아래에 있던 가족과 동료와 비전과 꿈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대화하시는 황홀한 상황이 끝나지 않은 채로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본다고 가정해봅니다. 그 때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사소한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에서 영화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산 아래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망각해버린 베드로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사소한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사소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의 순간에 하늘이 열려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뵙고 그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과 목숨까지도 사소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예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육체의 목숨까지도 사소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이러한 입장에서 서서 지금 주어진 삶의 상황이나 사건들을 볼 때에 사소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소함의 기준을 정한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된 부자의 탄식과 간구가 묘사됩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입장에서 삶의 처지를 본다면 막대한 재산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거지 나사로와 같은 형편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지옥을 기준으로 삼고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하게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목숨조차도 사소하게 여기게 하셨고,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죄악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소한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논쟁을 그만둡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욥은 본의 아니게 깊은 사고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었고 본문에서는 그것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절과 12절을 보면 욥이 무엇을 주제로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라고 질문했는데, 12절에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두 구절 사이의 2~11절까지는 인간 세상에서 횡횡하는 강하고 부한 자들이 약하고 빈곤한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악행과 억울한 사정들을 열거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구석구석 섭리하시기에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수탈하고 착취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약한 자들을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욥은 이것을 1절에서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욥은 앞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23장 3절에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라고 하였고 또한 9절에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은 인정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주체성은 이 세상에서 섭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면해야 될 하나님의 실체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늘로 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세상 바깥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면서 이 세상을 답답한 감금상태로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애인을 매우 사랑한 끝에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다 포기하고 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커리어우먼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일임에도 실제로 그 감금상태가 답답하지 않은 이유는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실의 왕비로 살아갈지라도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없다면 왕실조차 답답한 감금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재산도 가족도 명성도 친구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회복조차 바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잘못을 고치면 회복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조차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어지자 세상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갖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욥의 사상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소원했던 것은 세상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축복으로 여기는 건강과 장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200살을 살라고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된 욥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공의를 보이시지 않는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억울한 일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억울하게 권력자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왜 공의를 보이시지 않는가에 대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이 세상은 무엇을 가져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실은 돈이 내게 아무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될 때에 억울함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본문 12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과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욥은 변화산의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적은 없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만은 알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때에 억울하게 여겼던 모든 일들도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의 대상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악한 자의 악함은 더욱 드러납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 이 세상에 배를 붙이고 살게 되고, 오히려 빼앗긴 자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늘을 향할 수 있는 유리한 형편으로 바뀌어 감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세상의 어려움에 등 돌리고 하늘을 향하게 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인해서 좋아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야 말로 아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은 될 수가 없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야말로 아편에 중독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하고 강한 자들을 사용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게 하실 때에, 이것이 정말로 억울하고 공의롭지 못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던 자들에게조차 억울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동안 억울하다고 느꼈던 모든 상황들은 정말로 억울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돈으로 기뻐하려는 자들에게 돈이 사라진 것은 아편 중독자에게서 아편을 빼앗은 것과 같습니다. 아편에 대한 의존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억울해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전한 모습으로 치유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9절에서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눈 녹은 물’은 곧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가뭄과 더위가 찾아오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없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자들이 빼앗은 것도 약한 자들이 빼앗긴 것도 본질적으로 이 세상 것인 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 바깥에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것들은 실제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영화롭게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비전과 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곤란에 처했을지라도, 오히려 세상에서 마음을 떼어낼 좋은 기회로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억울하게 여겨야 할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일화에서 부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을 세상 것들을 잔뜩 가짐으로 인해서 하늘을 보지 못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야 말로 억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와 재산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24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목숨조차도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명적인 차원에서 이 목숨은 소중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변화산의 경험이 끊임없이 나의 경험이 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까지도 사소한 것이 되어 오직 사명의 역할만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